

Geo-linking 서비스 현황과 지리학적 논제

장은미 (한국공간정보통신;emchang21@gmail.com)

김일림 (상명대학교;ilrim9@smu.ac.kr)

이은숙 (상명대학교;eunsook@smu.ac.kr)

1. 서론

최근 인터넷 기반의 지리정보가 포털사이트 및 기타 검색사이트에 이르기까지 일반화된 정보로서 활용성이 강하게 부각됨에 따라 일반 멀티미디어 자료와 문화 콘텐츠 등이 위치자료와 연계되어 서비스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학문간 융합과 학문 내의 세전공간의 경계 파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시각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1) 연구목적

문화콘텐츠 자체를 디지털화된 문화정보로서 개별화된 객체로 정의를 한다고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위치정보의 형태는 다양한 모형태를 보여준다. 메타데이터로서 밖으로 추출될 수 있기도 하며, 또한 여러 개의 위치좌표와 관계를 맺기도 하며, 그 중요성에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에 서비스를 앞두고 문화 콘텐츠의 개별 작품들을 지리정보화 하는 작업에 대한 프로세스 정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학공간구축과제를 통하여 (이은숙 외 2007, 장은미 외 2008, 김일림 외, 2006) 작성시기의 문제, 공간적 해상도의 문제, 추상성의 문제, 포인트 데이터 처리의 문제, 지도화 표출과정의 문제 등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경험한 바 있으나 세부적인 논의로 별도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문학공간 이외의 타 문화콘텐츠에도 확장 적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화된 논의를 진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연구방법

문화 콘텐츠를 정의하는 과정은 인류학에서 “문화” 를 정의하는 것보다 결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일반적인 digital contents 또는 데이터베이스와는 사뭇 다른 문화적 산물이 독립적으로 하나의 파일형태로 전산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도구적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것의 양과 종류는 문화의 그것만큼 다원적이며, 장르를 분류하는 것은 본 연구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의 노래도 원과 편곡과 부분화되어 추출된 광고곡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콘텐츠의 DB화에는 원시데이터 또는 초기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형적 작품으로 독립된 객체를 갖는 것을 작품이라고 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전산화 해 놓은 것을 문화 콘텐츠라고 정의하

자.

최근의 포털과 블로그에 올린 수 많은 글과 사진들도 일련의 작품으로 넣을 수 있는가는 별도의 논의로 하고, 일단 인터넷에 서비스될 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대중적 차원의 문화컨텐츠로 넓게 포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치정보를 부여하는 과정 자체를 지도와 연계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절대적 좌표를 부여하는 측량적 접근과는 달리 상대적이고 편의에 의해 정의되어지는 참조적 위치정보의 부여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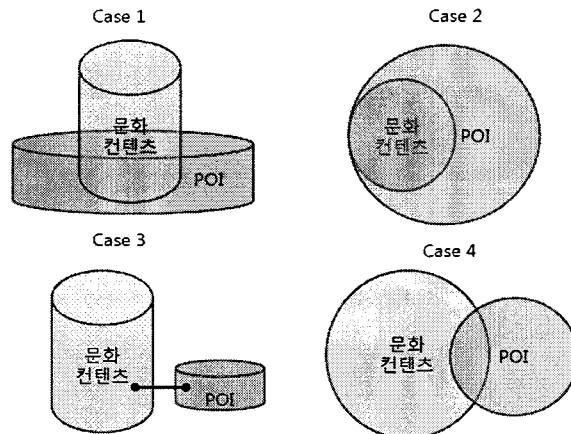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위적인 용어정의를 두고, 인터넷 상에 지리정보와 연계되어 서비스 되고 있는 문화컨텐츠의 유형을 살펴보고, 분류해보고,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의 문제점을 추출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문화지리정보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2. 본론

1) 문화컨텐츠와 POI의 관계

POI는 point of interest로 다양한 지리정보에 배경이 되거나 참조가 되는 자료로 차량항법장치에 주로 사용되던 용어이자, 최근에는 webGIS로 구현되는 다양한 주제도에 포괄적인 레이어로 배경지도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컨텐츠와 POI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case 1. 문화컨텐츠의 위치정보는 핵심/ POI는 주변 즉 core contents 와 peripheral contents의 관계 일 수 있다.
- case 2. 문화컨텐츠 자체가 POI의 일부가 될 수 있다. $C.C \in POI$
- case 3. 문화컨텐츠의 일부의 속성 중에 매우 부수적으로 표현되는 수단으로 위치정보를 생각할 수 있다. master/slave의 관계
- case 4. 문화컨텐츠와 POI가 일부 중복되는 관계



위의 관점에서 각 case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 입장	위치정보
case 1	디지털 문화백과사전 및 일반 정보화 사업을 통한 스캐닝작업	POI는 없어도 그만인 배경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나 있으면 더욱 좋다는 입장
case 2	차량항법장치	좌표로 처리되며 문화컨텐츠의 이름을 속성으로 POI로 처리
case 3	geo-linking할 수 있다는 생각 대부분의 블로거들의 입장	POI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고 나중에 필요시 링크하겠다는 입장
case 4	의도를 하고 지리정보로 구축된 문화컨텐츠 구축 작업	문학에 나타난 공간

2) 문화컨텐츠 내의 지명의 다원성 문제

문화컨텐츠에서 위치정보를 추출할 때, 공간적 배경은 실제적으로 다원화될 수 밖에 없다.

- 도시-교외-시골의 zone 의 개념으로 배치시킬 수 있기도 하다.
- 동해와 남해와 같이 넓은 면에 배치되기도 하며, 한강과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자세히 볼 때는 면, 멀리서 보게 되면 선에 배치가 될 수도 있다.
- 가장 상세한 단위를 어디까지 구축할 것인가에 따라 표현되는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수도권 도시소설 100여개의 대표작품의 공간을 GIS DB로 구축할 경우에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고 그 경우는 서울은 포인트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한국의 문학공간을 전체로 포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DB구축과정에는 “서울” 이라는 이름의 지명이 나오지만 이를 어떻게 서비스 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매번 지명주기를 달아 줄 것인가의 문제도 문화컨텐츠의 시나리오 부분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문제이다.

또한 문화컨텐츠에 나타난 가상의 지명 예로서, 은비령, 꼬방동네, 낙원동, J시 등의 약어와 가상지명은 GIS화 작업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case 3 조차 적용시킬 수 없는 심상지도 (mental map)의 영역으로 치환된다.

3) 한 작품에 여러 POI가 걸치는 경우

아리랑과 같은 대하소설의 경우에 이를 어떠한 위치좌표에 가장 강하게 링크 시킬 것인가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 DB 구축하는 사람에 따라 독자에 따라 혹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달리 구축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GIS 구축과 같이 객관화된 품질관리가 거의 불가능

하지만, 마구잡이 링크를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한다. 이는 위키디피아에 틀린 글을 올리면, 자정작용에 의해 삭제되는 집단지성을 의지하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 외에는 현재는 답이 없다.

4) 시나리오에 의존적인 DB구축, DB구축후 그 내용을 보고 시나리오를 만들 것인가의 선후의 문제

문화컨텐츠의 DB구축은 초기의 기획단계와 전산과 입력과정에서 고려할 시나리오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웹사이트 활용자와의 상호작용 역시 열어놓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의 발굴은 언제 어디서든 적용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구축 프로세스가 잡혀야한다.

5)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위한 수준문제

기존의 컨텐츠에 위치정보만 걸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우려가 실제 논의될 수 있다. 특정 노래의 음원과 지명을 연결하여 맛보기 수준의 링크를 걸 경우에도 서비스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식권까지 확대되는 방향의 강화 흐름과 반대로, 공동의 지(collective knowledge)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가운데 있으므로 지나치게 엄격한 지식권의 침범의 잣대에 대한 우려도 표명된다. GEO-DRM은 주로 속성보다는 위치정보에 대한 침해방지방법으로 2008년 이후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은 각 위치에 연결된 컨텐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지 못하다.

3. 결론

문화컨텐츠와 위치정보의 링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case를 살펴보고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 위치정보와 지도라는 관문을 통해 더 많은 사용자들과 만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입장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림과 음악, 사진, 만화와 교가 우리의 삶속에 산재되어 있는 가치로운 문화컨텐츠가 지도와 화학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학제간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mesh up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논의를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과 서비스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는 문화지리학과 GIS서비스 분야 간의 hot issue로 지리학의 지평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